

황영석 전북자치도의원, 제12대 하반기 의장 출마 선언

“의회다운 의회 구현 목표”

“의장으로서 의원 조력자로 소임 다할 것”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출마를 선언한 황영석 의원(2선, 김제시2선 거구)이 12일 오전 도의회 기자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황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재정지원은 되지 않는 허울뿐인 특별자치도가 될까 걱정되고, 타 지자체의 특별자치도 난립으로 희소성 또한 흔들리고 있으며, 집행부 내부의 간부 갑질 문제로 도청 전체가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는 때”라며, “다양한 경험과 연륜을 갖춘 안정된 리더십으로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민생 최우선과 행정 안정화를 통한 더 특별한 전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도의회의 역할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도의회가 도민의 대의 기관으로 거듭나서 의회다운 의회, 소통하는 의회, 전문성을 갖춘 의회 구현을 위해 39명의 의원의 총심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먼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의회다운 의회 상을

구현하기 위해 의원 정수 2명 정도 확대, 의회 조직원 및 예산권 확보, 지방회법을 제정하고, 집행부의 철저한 감시와 견제로 전북의 이익을 위해 협력할 것은 협력하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의원들이 마음 놓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재구조화하도록 하며, 특히 입법정책담당관의 역할과 기능을 재구조화해 권역별 현안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가 전문성으로 무장한 정책 의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임위 소관부서에 맞는 교육 훈련 시행으로 상임위의 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의원들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정례적으로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끝으로, 소통하는 의회를 위해 도민과의 소통 채널을 더욱 넓혀가겠다며, 의장 한 사람이 아닌 의원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도의회의 얼굴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매체 활용으로 홍보 기능 확대, 도민과 직접 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출마를 선언한 황영석 의원 12일 오전 도의회 기자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통할 수 있는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를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황 의원은 김제시청 공무원 20년 재직 후 의정활동에 뜻을 두고 김제시 의원 3선을 거쳐 11대 하반기 도의회 부의장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했으며, 이번 12대 도의회 의장

에 출마하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의장선거에 임한다고 말했다.

의원 정수 2여명 확대 의회 조직원 등 확보

입법정책담당관 역할·기능 재구조화 현안 적극 대응

다양한 홍보 매체 활용 도민 소통 토론회 지원

의원으로서 가장 어려운 결단인 “남들이 박수칠 때 떠나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번 12대 의원을 마지막으로 한다는 각오로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다고 하며, 39명 의원들의 조력자가 되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하며 최연장자다운 의연한 모습으로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이번 도의장 선거는 문승우 의원과 박용근 의원 그리고 황 의원 등 세 후보의 팽팽한 접전으로 어느 선거보다 치열한 경합이 예상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만호 기자



“완주군민의,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행정통합”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통합을 요구하고 있는 완주역사문화추진위원회, 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 완주·전주상생네트워크 등은 12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주민투표 청구 관련 의사를 밝히고 있다.

재난방송협의회 구성·운영 가능해진다

문승우 전북자치도의원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재난방송협의회 구성·운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원(군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재난방송협의회 조례안’이 지난 10일 상임위인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안, 재난방송 관련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 언론에 공개할 재난 관련 정보 결정 등을 심의할 수 있는 재난방송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했다.

문승우 의원은 “집중호우, 대설, 코로나 19 등 감염병, 화재 등 점차 다양화·대형화·복합화되고 있는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재난방송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재난방송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파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12일 서울 여의도 컨벤션 호텔에서 열린 제22대 전북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책 간담회에 김관영 도지사와 한병도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전북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여 전북현안에 대해 정책 간담회를 가진 뒤 손을 맞잡고 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열린 제22대 전북연고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책 간담회에 김관영 도지사와 안규백(고창) 국회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전북현안에 대해 정책 간담회를 갖고 있다.



전북연고 국회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책간담회 2024. 6. 12. (수)

전북 지역·연고 국회의원과 협치 시동

김관영 도지사, 정책간담회 열고 내년 국가예산·현안 지원 등 논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2일 국회 인근에서 제22대 전북 국회의원들과 전북 연고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2025년 국가예산 및 지역 주요 현안 사업 지원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아침, 점심 등 두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먼저, 조찬 모임으로 진행된 정책간담회는 전북 국회의원 10명이 모두 참석해 의견을 수렴했다.

회의는 지난 5월 30일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상견례라는 점에서 주목 받았다. 특히 전북의 경우, 5선인 정동영(전주) 의원과 4선 이춘석(익산) 의원, 3선 이준석(전주) 의원, 2선 이학영(익산) 의원, 안호영(완주) 의원 그리고 재선에 신영대(군산)·김제(부안)·이원택(군산)·김제(부안)·윤준병(정읍)·고창(안동) 등 역대 최대 중량급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이날 회의는 김관영 도지사의 주재로 진행됐고, 전북 주요 법안과 현안 및 국가 예산 등이 다뤄졌다.

먼저, 주요 법안으로는 ‘내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전주가정법원 설치 관련 법률 개정’, ‘농화농민 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전북특별법 개정’ 등이 논의됐다.

현안사업은 ‘바이오 특화단지 구축’, ‘주요 SOC 국가계획 반영’, ‘세계한인 비즈니스대회 개최’, ‘2차 공공기관 이전’, ‘특별자치도 제5차 국토종합수정계획 반영’ 등이 제기됐다.

국가예산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단계에서 전북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실 관시 사업 공유를 통한 중점 사업 반영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정책 간담회는 연고의원들에 대한 소통과 연계 강화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당내 비중 있는 인사들이 연고 의원들에 포함돼 거는 기대도 크다.

실제 추미애(전 민주당 당대표, 6선), 이학영(국회 부의장, 4선), 인요한(전 국민회 혁신위원장, 초선) 국회의원은 현

재 중책을 맡거나 맡았던 의원들이다. 여기에 안규백(5선), 정성호(5선), 조배숙(5선), 진선미(4선), 유동수(3선), 소병훈(3선), 진성준(3선) 등 다선의원들이 포진해 전북 연고 정치권 위상을 확인시켰다.

무엇보다도 이날 회의에서 초선 연고 의원들의 많은 참석은 전북 발전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김남희·안태준·오세희·이기현·이영우·이정현·위성락·정을호·황정아·강경숙·김재원 국회의원 등 초선들이 함께했다.

점심 모임으로 진행된 회의에서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발전을 위해 필요한 입법과 정책현안을 소개하며 지원을 요청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이렇게 찾아뵙게 된 것은 간절함 때문”이라며 “오직 협력하며 진짜 특별한 차치도를 같이 만들어 가길 바란다. 도는 현안을 최대한 공유하고 수시로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한병도 국회의원은 “이제 전북 원팀

으로 일을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도민들이 지켜보고 기대하시는 바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도와 22대 국회의원들이 팔뚝 뽕쳐 지역의 현안에 대해 함께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안규백 국회의원은 “고향을 사랑하는 사람이 지역구를 사랑하고 지역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고향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오늘 모인 전북 연고 의원님들의 마음 자체가 아닐까 싶다.”라며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전북자치도가 도약할 수 있고, 지방자치 사회의 힘을 기를 수 있는 전환기적인 원인이 됐으면 한다. 연대 협력 통해 전북이 도약하고 세계 속에 우뚝 서는 전라도가 되기를 희망한다. 힘을 보태고 지혜를 모아가겠다.”라고 말했다.

조배숙 국회의원은 “전북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호남 유일 여당(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예산 확보는 물론 전북 구석구석의 현안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가축전염병 방역인력 확대 근거 마련

나인권 전북자치도의원 발의 조례안, 농산경위 심의 통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북특별자치도 축산물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농산경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최근 렘피스킨,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이 연중 발생해 방역업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수의직 공무원의 결원이 늘고 있어 가축방역관, 검사관 등 인력 수급의 불안정성을 전문인력을 활용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나 의원은 “전북특별법 제83조 가축방역관 역할 및 공수의 업무 등에 관한 특례 사항을 반영하여 가축방역관 및 공수의 자격과 임명 위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가축전염병 방역 인력 확대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방역관 및 공수의



의 자격과 임명·위촉, △공수의 업무보고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조례에 따라 수의사 중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공중방역 수의사, 도내에서 위촉한 공수의 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의사를 가축방역관으로 임명·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전북자치도에 두는 공수의는 수의사 중에서 동물병원을 개설하거나 근무하는 수의사 외에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의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북특별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공수의로 위촉 수의사를 검사관으로 임명 위촉하여 축산물 위생과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나인권 의원은 “가축전염병이 발생 할 때마다 가축방역관, 공수의 등 전문인력이 최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았다.”며,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의회 예결특위, 회계연도 도·교육청 결산 심사 돌입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용태, 진안)는 12일 행정부지사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18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먼저, 문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4)은 해양쓰레기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문제라며 해양쓰레기가 선박과

해양쓰레기 수거 등 질의 쏟아져 어민, 해양관광 등에 미치는 피해에 대해 언급하고, 해양쓰레기 수거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염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와 관련, 추진 상황 등에 대해 질문하며 전북도가 위상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차질없이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윤수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1)은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의 경우 연초의 사안이 하반기로 지연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조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만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 2)은 부안지역의 지진 발생과 관련한 대책과 대응방안에 대해 묻고, 한빛원전을 포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서안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9)은 고향 사랑 기금 사업과 관련, 지립 준비 창원의 주거지원과 전국소년체전 초·중·고 학생 지원 등을 지정 기부를 통해 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와 관련, 추진 상황과 활용방안 등에 대해 묻고, 대규모 시설을 마련해 놓고 활용방안 마련이 늦은 것은 문제라며,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도민 이익 최우선”... 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 15일 개소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이달 15일 전주시 효자동에 마련된 당사에서 개소식을 개최한다.

12일 도당은 당일 오후 2시에 예정된 행사에 전북 연고가 있는 조국혁신당의 강경숙 의원, 김재원 의원을 비롯해 많은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당 측은 당사 개소식을 앞두고 당의 나아갈 길에 대한 ‘당원의 지혜를 구하는 대화마당’을 시·군별로 진행해왔으며, 많은 당원들이 참석해

당의 활동계획을 공유하면서 ‘사회권 선진국’과 ‘제7공화국’을 열어가자는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의했다고 했다.

정도상 도당위원장은 “대화마당에서 새로운 정당에 대한 당원과 도민의 기대와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개소식을 계기로 검찰독재와 윤석열 정권 조기종식을 위한 싸움에서도 앞장 서겠지만 무엇보다 ‘도민 이익 최우선’ 전북도당을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뉴스